반구대암각화의 座礁鯨 得鯨 활동에 관한 硏究

- 고래와 人間의 交流史로서 傳統 고래文化에 대한 解釋 -

A Study of the Gaining Whale Activities for the Stranding Whales of the Bangudae Petroglyphs

- An Analysis for the Traditional Whale Culture as the Interactive History Between Whale and Human -

김성규*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 회장/ 세계전통고래문화연구소 소장

Sung Kyu Kim* President/ Head Director,
The Korean New World Discovery Society
The World Traditional Whale Culture Institute

요 약

반구대 대곡리암각화가 물에 침수되는 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반구대암각화가 고래고기 食文化 경전이나 되는 듯한 고래사냥 일변도의 해석의 난무가 그것이다. 울산은 왜 고래사랑 도시가 아닌 '고래고기사랑 도시'에서 그릇 방황하고 있을까? 그 책임은 학계에서 그동안 반구대암각화 자체를 大洋捕鯨 역사의 원형(原形)이나 되는 듯이 호도한데도 있다. 그러나 본 硏究는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진 어업 그림들은 大洋捕鯨이 아닌 연안에 좌초되어 온 좌초경(座礁鯨)을 수동적으로 잡은 沿岸得鯨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국제적인 여러 연안 고래사냥 방증들을 비교하여 밝히려 한다. 우리나라 고래사냥 역사에서 그 역사적인 팩트는 능동적으로 고래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 고래사냥(Passive Whaling)이었다. 우리나라 전통고래문화에 대하여 특히 인간과 고래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니라 고래와 인간의 交互 交感의 交流史를 이어왔다는 새로운 해석은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기존 해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울산지역을 '고래고기 사랑' 도시가 아닌 세계 고래사랑의 메카로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Bangudae Petroglyphs has more serious problems than the submersion of it. It is strongly biased interpretations about the petroglyphs as if it were the scriptures of the whale meat eating culture in S. Korea. Why is the Ulsan City badly wandering between the City of Whale Love and the City of Whale Meat Love? It's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misleading of the academic world about the Bangudae Petroglyphs as if it has been 'the original prototype of the Ocean Whale Hunting'.

However, with various international proofs which had not been the ocean whale hunting, this study will reveal the Bangudae Petroglyphs as the petroglyphs of Gaining Whales(得鯨) for the Stranding Whales in the beaches. Indeed those activities of the historical facts in the petroglyps were Passive Whaling in the beaches, not Whale Hunting in the ocean. This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Bangudae Petroglyps, which proves the mutual reciprocality between humans and whales will present a new paradigm for the comprehension about the Korean whale culture and it will raise the historical awareness for the Ulsan area as the Mecca of the Whale Love of the World,. not as 'the City of the Whale Meat Love'.

Keywords: Bangudae whaling interpretation, Passive whaling, Whale obtaining, Cetacean stranding, Cetacean drifting.

서 론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와 관련한 어업 그림들을 이해하려면 선사시대 이래 연안에 좌초되어 온 고래들인 座礁鯨(Cetacean stranding) 또는 죽어 표류되어 온 표착경(漂着鯨) 획득에 그쳤다는 이해가 선재되어야 한다. 연안에 좌초되어 온 좌초경을 잡는 것은 포경(捕鯨)이 아니라 득경(得鯨)이라 한다.[22]

先史時代 이래 우리나라는 고래사냥 중심지가 아니라 고래사랑과 고래토템 문화의 메카였다. 우리나라 전통 고래문화를 제대로 알리려면 대곡리암각화의 근간이 고래사냥이 아니라 연안에서 이루어진 좌초경 득경 활동이었다는 것과 함께 고래와 인간의 상호 교류 교감의 고래사랑 그림들로 이루어졌다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해내야 한다.

본 론

1. 得鯨이란 무엇인가

포경의 역사는 近代 이전의 수동적 포획(手動的 捕獲, Passive Whaling)[23]이 근간이었으나 근현대에 들어와 급격히 그물식 포경(網取式捕鯨) 및 포살식 포경(砲殺式 捕鯨)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고래문화의 전체 역사를 근현대식 포경문화로 소급 해석하는 오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先史時代부터 이어져 온 수동식 포획은 좌초경(座礁鯨)을 얻는 이른바 득경(得鯨)하는 것이었다. 得鯨이란 무엇인가?

1) 得鯨(Whale obtaining)과 捕鯨(Whale hunting의 차이

沿岸에서 座礁鯨을 획득하는 것을 조선시대까지 기록에는 得鯨이라 기록했다. 그 한 예가 17세기 인물인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陶谷集]에 '束得鯨鬐驚脊崖'이라 하여 "得鯨한 고래의 등지느러미를 잡으니 그 줄기 높아 놀라고"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24] 得鯨은 연안에 좌초되어 오거나 표류해온 座礁鯨(Cetacean stranding)과 표착경(漂着鯨)에서만이 가능했다.

2) 座礁鯨(Cetacean stranding)과 漂着鯨(Cetacean drifting)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옛 문헌에서 큰 바다에 나아가 고래를 사냥하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先史時代 어업활동부터 마치 大洋 捕鯨활동이 이루어져 온 것처럼 호도되어 왔다.

바닷가에 좌초되어 자력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없이 잡히거나 죽는 고래를 좌초경(座礁鯨, Cetacean stranding 또는 Whale stranding)이라 한다. 해안에 온 고래라 하여 Beaching Whale이라고도 한다. 좌초경은 개체 좌초경(Live Stranding Whale)과 집단 좌초경(Mass Stranding Whale)으로 구분한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좌초경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16미터 크기의 향고래 한 마리가 전남 무안군 우이도 성촌해변에 좌초되어 발견된 적이 있다.[26] 연안에서 좌초경(座礁鯨)을 잡는 전통적인 어업을 海豚漁(해돈어) 또는 江豬漁(강저어)라고도 했다.[27]

---

22) 得鯨은 찾아온 고래를 얻는 것으로 대양에서 활동하는 고래를 찾아가 살해하는 捕鯨과는 완전히 다르다. "束得鯨鬐驚脊崖." 李宜顯, [陶谷集] 제4권.

23)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사냥은 Passive Whaling(수동적 고래사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https://hyakumonogatari.com/2013/05/10/bakekujira-and-japans-whale-cults/

24) 李宜顯, [陶谷集] 제4권.

25) 일본인들의 고래사냥을 주로 소개하고 한반도 연안의 실제적인 고래사냥은 어느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靑蒼錄, 한문학에 나타난 고래에 대한 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 동방한문학회 62집 2015년 참조.

26) 2006년 무안군 해안에 좌초된 향고래를 발견한 박달재 씨는 본 연구자에게 그 당시에 향고래가 해안에 와서 처음엔 살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달재 씨는 그 향고래의 전체 골격을 그 꼬리와 함께 보존해 오고 있다.

27) 中村 羊一郎 , '玄海灘におけるイルカ漁と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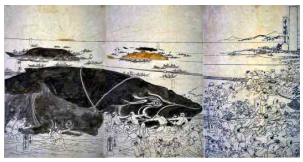


*사진 1 (왼쪽): 2005년 1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해변에 좌초되어 와서 죽은 향고래. *사진 2(오른쪽): 일본의 우키오에의 좌초경 사냥 그림.

반면에 대양에서 표류하다 해안에 올 땐 이미 죽은 채로 도착한 고래 시체의 경우 표착경(漂着鯨 Cetacean drifting)이라 한다. 표착경은 고기가 아닌 주로 고래기름 등 고래의 부산물들을 사용했다. 표착된 고래를 일본에서 요리쿠지라(寄り鯨) 또는 나가래쿠지라(流れ鯨) 즉 '떠다니는 고래'라고 표현했다.

3) 왕실의 還生思想에서의 座礁鯨과 漂着鯨

뉴질랜드 마오리족 시조 파이키아(Paikia) 신화[28]를 비롯하여 원시 고래잡이 부족들의 神話에는 고래가 바닷가에 찾아와 그들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흔하다. 신라시조 閼英婦人 신화에도 고래가 시조라는 내용을 추적해 낼 수 있다. 閼英을 "용(고래)이 갑자기 나타나 죽으니 그 배를 갈라 나온 여자아이(龍現死. 而剖其腹得之)"라고 하여 바닷가에 좌초된 좌초경(座礁鯨) 시조신화이다.[29] 신라시조이자 왕후인 알영(閼英)에 대한 신화를 문학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沈淸傳] 또한 민물의 연꽃이 아닌 고래 뱃속에서 심청이 나와 왕후가 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30]

옛사람들은 표착경(漂着鯨)이 해변에 도달하면 龍王이 죽어 地上의 王으로 태어나기 위해 해안으로 표착해 돌아왔다고 믿었다. 신라시조 왕후인 閼英婦人이 고래에게서 태어나듯 文武大王이 죽어서 고래나루에 묻혀(粉骨鯨津) 바다의 고래인 海中大龍으로 태어나겠다고 한 것은 같은 고래토템이다.[31]

신라왕실만이 아니라 "백제왕실에서도 고래나루가 있어 대궐의 숭상을 받았다(其有三韓舊域, 百濟遺封, 地控鯨津, 誠尊象闕)"[32]는 [高麗史]의 기록이 있다. 신라의 문무대왕이 해중대룡(고래)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백제가 멸망한 징조로 "73척(약 20m) 女人 시체(죽은 漂着鯨 의미)가 바다에 떠 있다"[33]고 한 [三國遺事]의 기록은 백제의 왕이 죽어 죽은 고래가 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표착경(漂着鯨)에 대한 王과 龍王의 互換還生 관계의 인식을 보여준다.

2. 座礁鯨을 사냥한 전통 沿岸 得鯨의 성격

1) 전통 고래사냥은 大洋 捕鯨 아닌 座礁鯨을 사냥한 피동적 沿岸 得鯨 활동

서양 포경이 들어온 18세기 후반 19세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래사냥 기록은 전무하다. 우리의 고래사냥 역사는 捕鯨이 아닌 좌초경(座

業組織,' 靜岡産業大學國際情報學部研究紀要 7 , 386-341쪽, 2005. 日本에서 14세기에 '海豚網(いるかあみ)'이라는 그물을 사용한 득경칭호가 남아있고, 바닷가에서 고래떼를 잡는 고래몰이사냥인 '追込網漁'라는 말도 남아 있다.

28) Te Ao Hou, The New World, The Story of Paikea and Ruatapu, No. 40, The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September 1962). 마오리족 신화에서 마오리족 시조 파이키아는 고래를 타고 뉴질랜드로 왔다고 한다. 또는 연안에 온 고래 자체를 그들의 시조로 여기고 있다. "The ancestor Paikea - Ngāi Tahu - Te Ara Encyclopedia of New Zealand". Teara.govt.nz. Retrieved, 2016.

29) [三國遺事] 혁거세편에 의하면 閼英은 계정(鷄井)에서 태어나 계림국의 첫왕으로 태어났다(初王生於鷄井. 故或云鷄林國) 갑자기 나타나 죽은 고래(용)의 배를 갈라 태어난(龍現死. 而剖其腹得之) 고래가 시조인 셈이다.

30) [沈淸傳]에서 심청이 들어간 龍宮의 "대들보는 고래뼈로 되어 있었다(卦鯨骨爲樑)"고 한 것을 보면 심청 이야기는 고래뱃속에서 태어난 고래시조 스토리다. 연꽃은 민물에만 산다. 정하영 역주 완판본 [沈淸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54쪽 1995.

31) 문무대왕 비문의 '粉骨鯨津' 및 [三國遺事] 문호왕편의 '海中大龍' 참조.

32) [高麗史] 성종(成宗) 2年(983년) 宋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을 때의 기록.

33) [三國遺事] 卷二, 紀異第二 문무왕편. "사자수(泗차水) 남쪽 바닷속에 한 여자의 시체(屍體)가 있는데, 키는 73척, 발의 길이는 6척, 음문(陰門)의 길이가 3척이었다(泗沘南海中有死女尸.身長七十三尺.足長六尺.陰長三尺)."

礁鯨)에 대한 得鯨 역사였기 때문이다.[34]

18세기 선비 李敏輔(1720～1799)의 [豐墅集]에 '고래가 포구에 떠밀려 와서 본 바를 읊어 기록하다(鯨漂入浦唫記所見)'라는 詩에서 강원도 동해시 인근인 "추암 북쪽에 있는 송라정에서 어부가 새벽에 고래가 강가에 떠밀려왔다고 보고하네(湫巖之北松蘿亭　漁人曉報鯨泊江)"[35]라고 했다. 조선후기의 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林園經濟志]에서도 백사장에 와서 죽은 고래를 얻어 고래 고기와 기름을 취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36] 16-7세기 우리나라 서해에서 좌초경을 득경한 예를 趙慶男(1570～1641)의 『續雜錄』에서도 볼 수 있다.[37] 해동잡록(海東雜錄)에 곡강(曲江)의 수령(守令)이 지은 시에, "동해 가에서 고래기름으로 어연(魚硯)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나, "1년에 3번씩 고래의 배를 갈랐다(一年三度刳鯨腹)"[38]라고 한 것은 연안에서 이루어진 得鯨을 뜻하고 있다. '작살을 꽂았다'가 아니라 '배를 갈랐다'는 말이 우리나라 고래 得鯨의 대표적인 말이다. 큰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사냥한 海洋 捕鯨이 아닌 것이다.

전통 고래잡이에서 得鯨 외에 捕鯨이라는 말은 없었다. 李圭景(1788～1856)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및 [鯨鰐辨證說]이나 徐有榘(1764～1845)의 [林園經濟志],[39]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玆山魚譜][40] 등에서 보듯이 고래사냥을 묘사한 장면은 일본측 자료인 寺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 등에서 인용한 일본인들의 고래 사냥을 소개한 정보만이 있을 뿐이다.[41]

연일포(延日浦: 오늘날 포항 영일만)가 고래잡이 하는 곳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도[42] 고래사냥의 장소가 큰 바다가 아닌 만(灣)이나 연안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특별히 좋아한 전통도 없었다. 1719년(숙종 45)에 일본 통신사에 참여한 신유한(申維翰: 1681-?)의 [海游錄]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고래고기가 선호됨을 보여주고 있고,[43] 曺命采(1700～1764)는 그의 [奉使日本時聞見錄]에서 1748년 음력 3월 21일 일본에 조선통신사로 갔을 때 대마도와 큐슈 사이에 있는 壹岐島에서 일본측이 조선 통신사 절단에게 보여준 고래사냥을 소개하고 있다.[44] 일본인들이 고래사냥 중에 상처를 입고 도망친 고래가 우리나라 바닷가에 좌초되어 죽는 사례도 포함시키고 있다.[45]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으로 고래사냥이 관청 현감에 의하여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朝鮮王朝實錄] 선조 26년 조에 전라도 부안 현감(扶安縣監)이 고래를 잡지 못하여 파직되는 내용이 그것이다.[46] 연산군 6년(1500년), 경기감사(京畿監司)에게 돌고래인 "강돈(江豚)을 두 마리 生捕하여 봉진(封進)하라" 했는데 그것은 대양이 아닌 江岸에서 이루어졌다. 生捕는 일본에서 '生け捕り'라고 하여 연안 좌초경 사냥을 뜻했다.[47]

장생포 고래사냥 역사는 1891년 러시아 황

34)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참조.
35) 李敏輔, '鯨漂入浦唫記所見', [豐墅集].
36) 徐有榘, [林園經濟志]. "백사장에서 죽은 고래를 한번 얻게 되면, 이빨·수염·힘줄·뼈가 모두 일용품이 되고 가죽과 고기는 졸여서 기름을 취한다."
37) "고래 두 마리가 서해로부터 고양(高陽)의 압도(鴨島)로 들어와 서로 싸웠는데, 한 마리는 그 크기가 한량이 없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살하여 들여와 기름을 짰다." 趙慶男. 續雜錄. 권4 1636년 음력 5월.
38) [海東雜錄] 3 本朝 魚得江, 권별(權鼈). "習氣年來苦未痊　又於東海制魚烟　一年三度刳鯨腹　揮筆還慚不直錢."
39) 徐有榘, [林園經濟十六志]. "일본인 어부들은 모(矛: 창)를 던져 고래를 잡고 있었으나, 우리 어부들은 그런 재주가 없었고, 그저 죽어 해안에 떠밀려온 고래를 획득하는 게 고작이었다."
40) 丁若銓, [玆山魚譜]. "돌고래 일종인 상광어 떼가 흑산도 연해에서 다수 목격되었으나 잡을 줄을 몰랐다"
41) 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에서 일본 고래사냥을 상세히 소개한 부분이 고래사냥에 관한 기록으로 유일하다. 연안에서 좌초경을 잡아 해체하는 내용은 楊士彦(1517-1584)의 [觀屠鯨], 柳濡(1564～1636)의 [觀獵鯨], 李敏輔의 [고래가 포구에 떠밀려 와서 본 바를 읊어 기록하다]라는 詩에도 있다.
42) 延日浦民, 得三鯨魚. [朝鮮王朝實錄] 영조실록.
43) "왜인이 고래고기의 회(膾)를 가장 중하게 여겨서 비싼 값으로 사서 손을 접대하는 화려한 찬으로 하나, 부드럽고 미끄럽고 기름져서 별로 다른 맛이 없었다." [海游錄]은 [海槎東遊錄]이라고도 한다. 『海行摠載』 중에 제3편과 [靑泉先生續集] 권3-6에도 수록되어 있다.
44) 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45) 曺命采 위의 책.
46) [朝鮮王朝實錄] 선조 26년(1593)
47) 1950年代까지 일본 NHK에서 '生け捕り(생포)'라고 표현했다.

태자 니콜라이 2세가 태평양어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그 시초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그릇 소급해서 우리나라 전통 고래문화역사 전체가 마치 서양식 포경을 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沿岸에 좌초경이 좌초되어 오는 곳엔 그 포구의 이름에 영덕, 원덕, 근덕, 덕구, 덕신, 덕천 등에서 처럼 德자로 표현했다는 것을 본 연구자는 한반도 동해안 지명조사에서 알아낼 수 있었다. 베트남 동해안 역시 德(đức)자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본 연구자가 베트남 현지 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고래를 cá voi(까보이)라고 하지만 한자 사용시대에 德魚(득응어: đức Ngư)라고 했다.

德(큰 덕)은 크다는 의미로 지상에서 가장 '큰 턱'을 가진 고래에서 우리말을 바탕하여 '큰 턱 = 큰 德'의 한자로 만들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48] "한 턱 내다"는 우리말은 큰 턱 즉 '고래 턱을 쏜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포구 이름 가운데 歸德포구와 咸德포구는 고래가 좌초되어 온데서 지어진 지명으로 해석된다.[49]

2) 座礁鯨과 漂着鯨에서 얻은 고래기름과 고래 눈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鯨鰐辨證說에 조선시대 고래기름 획득은 연안 座礁鯨 득경에서 얻었다고 썼다.[50] 선사시대부터 이미 바닷가에 떠오른 좌초경이나 표착경으로부터 고래기름을 획득하여 움막 안을 따뜻하게 하거나 밝히는 등촉용으로 사용했다.

*사진 3: 3-4천년 전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에 온돌집을 지었던 코리안 선조들이 고래기름을 사용한 석조등잔. Aleut Museum. 2012년. 8월, 본 연구자 촬영.

사진 3에서 보는 대로 본 연구자가 3-4000년 된 코리안 온돌이 발굴된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 현지 탐사를 갔을 때 그곳 알류트 박물관(Aleut Museum)에서 돌로 된 수많은 고래기름 등잔을 확인했다.

[高麗史]에 동해안에서 원나라 사신이 신루지(蜃樓脂: 고래기름)를 구하고자 했다거나[51] 조선시대 영조 때(1747년) 딸의 혼수를 위해 고래기름(鯨油)을 횡령했다는 것 또한 沿岸 좌초경 또는 표착경에서 얻은 것이었다.[52] [三國史記]에 고구려 민중왕 때와 고구려 13대 서천왕 때 및 조선시대 태종이 명나라 사신에게 주었다거나, 영조 1년(1725년)의 왕실에 진상했다는 고래눈[53]이나 고래수염도 연안에서 得鯨한 坐礁鯨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2. 대곡리암각화의 좌초경(座礁鯨) 득경활동 성격

1) 대곡리암각화의 그물과 木柵 및 船舶은 연안 得鯨用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고래사냥 장면이 연안 득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木柵과 그물 및 가죽배였던 카약(qayaq)과 우미악

48) 한자의 상당수가 동이족인 우리 민족의 음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 歸德은 외래신(고래)인 영등신이 찾아오는 포구로 2016년부터 영등신 축제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咸德포구 또한 칠성신이 찾아온 외래신의 포구이다.

5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鯨鰐辨證說. "우리나라의 경우, 바닷가 고을에서 혹 죽어서 떠오른 고래가 있으면 매우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이익이 적지 않다.(我東則沿海郡邑海澨。或有斃鯨漂泊。而得油甚多)."

51) [高麗史] 원종(元宗) 14年(1273년) 기록. "達魯花赤以中書省牒, 往東界及慶尙道, 求蜃樓脂, 蜃樓脂鯨魚油也."

52) "신의 7촌 숙부인 서명연(徐命衍)은 평소 청백리로 일컬어졌는데, 해읍(海邑)의 수령으로 있었을때 경유(鯨油)를 팔아 시집가는 딸의 혼수를 장만했다 합니다." [朝鮮王朝實錄] 영조실록.

53) [朝鮮王朝實錄] 영조실록. "고래의 눈은 다만 하찮은 물품이고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鯨眼只是微細之物也)." 옛사람들은 고래의 눈이 변하여 칠보의 하나인 명월주(明月珠)가 된다고 믿었다. [文選 吳都賦 注].

(Umiak)이다.[54] 넓은 대양에서는 木柵이나 가죽배를 사용할 수 없다. 연안에서만이 좌초되어 온 고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木柵과 그물 및 가죽배를 사용했다.

*사진 4: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木柵과 그물 및 가죽배인 카약(qayaq)과 우미악(Umiak).

대곡리암각화의 목책과 그물이 연안 득경용인 것에 대한 방증을 본 연구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의 Fine Arts Museum에 소장된 16세기 네덜란드 전통 연안 고래사냥 그림에서 좌초된 향고래 3 마리와 목책과 선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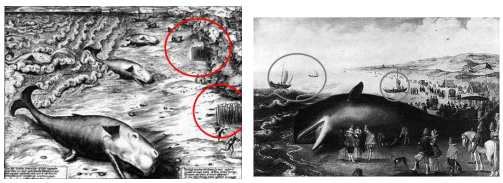


*사진 5(왼쪽): 반구대암각화처럼 '목책'이 있는 1577년 네덜란드의 좌초경 획득 그림.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처럼 坐礁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木柵이 보인다.[55] *사진 6(오른쪽): 1598년 네덜란드 좌초경 득경 그림. 반구대암각화처럼 고래잡이배들이 보인다! [56]

연안에서 작은 돌고래떼를 그물로 잡는 전통이 일본에 남아 있다. 14세기에 돌고래를 잡는 그물을 '海豚網(돌고래 그물: いるかあみ)'이라고 했다.[57] 연안 득경활동은 대양이 아니기에 여성들도 가능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 전통에서 여성들이 몇몇 배에 타고 몰이고래사냥을 하는 여성 하츠모리(ハツモリ) 고래사냥도 있었다.[58] 이 또한 간접적인 해안선 득경활동이다.

2)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을 함께 그린 대곡리암각화의 구성 배경

반구대 대곡리암각화 외에도 세계 각지의 원시 고래암각화가 沿岸 득경활동임을 알 수 있다. 시베리아 추코트카(Chukotka)의 펙티멜 암각화(Pegtymel petroglyphs)도 육지동물과 함께 그려진 구성상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래사냥 암각화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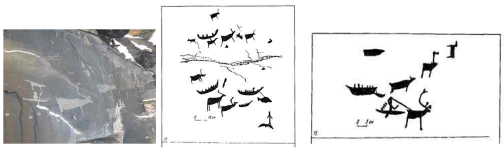


*사진 7(왼쪽): 1000년 전 가죽 카약과 가죽 우미악으로 강을 거슬러 와서 고래와 함께 땅 짐승들을 사냥하는 북극해 Chukotka 지역의 펙티멜 암각화(Pegtymel petroglyphs). *그림 1(중간)과 그림 2(오른쪽): Chukotka 지역의 펙티멜 암각화(Pegtymel petroglyphs). 1000년 전 가죽으로 만든 우미악과 카약으로 순록을 사냥하고 있는 연안 득경을 보여준다.[59]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와 육지 동물이 함께 새겨진 것처럼 연안활동에서 가죽배인 카약과 우미악(Umiak)[60]을 타고 사슴사냥과 고래사냥이 함께 이루어지는 간접 사냥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선사시대 이래 전통 원시부족들의 연안 得

54)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잡이 배가 가죽배로 해석한 것은 본 연구자가 최초이다.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硏究'.

55) Three Beached Whales, 1577 engraving by Dutch artist Jan Wierix((1549-1620) depicts stranded Sperm Whales. Fine Arts Museums of San Francisco.

56) Stranded whale at Katwijk in Holland in 1598. Ellis, R. 1994. Monsters of the Sea. Robert Hal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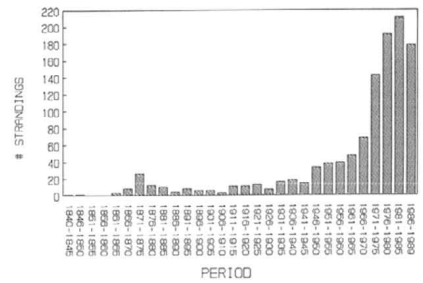
57) 天野努의 [図說 安房の歷史], 鄕土出版社, 2009. 中村 羊一郎, 玄海灘におけるイルカ漁と漁業組織, 靜岡産業大學國際情報學部硏究紀要 7 , 頁386-341, 2005年2月28日 , 靜岡産業大學 , (PDF)

58) 1773年에 기록된 [肥前國産物図考]의 하나인 [海豚漁事 · 鮪網之図 · 鯛網 · 海士]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靜岡産業大學敎授인 中村羊一郎은 지적하고 있다. 中村 羊一郎, 玄海灘におけるイルカ漁と漁業組織, 靜岡産業大學國際情報學部硏究紀要 7, 386-341쪽, 靜岡産業大學, 2005.

59) Nikolaĭ Nikolaevich Dikov, (Trans. Richard L. Bland) Mysteries in the Rocks of Ancient Chukotka (Petroglyphs of Pegtymel).Moscow. Nauka (1971) p.136

60)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硏究'.

鯨活動에서 좌초되어 오는 坐礁鯨 숫자가 많았을 것임을 뉴질랜드 座礁鯨 도래 빈도수 조사에서 알 수 있다.



*그래픽 1: 1840-1989년 사이 뉴질랜드 좌초경 변화 도표. 1978년 뉴질랜드의 좌초경 보호헌장이 발효된 이후 좌초경 숫자가 급격히 많이 보고된 것은 원시 좌초경 수가 많았을 것임을 보여준다.61)

그래픽 1을 보면 옛 시대 연안에는 많은 座礁鯨들이 좌초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연안 得鯨으로 원시 어부들의 어업이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표>1. 대곡리암각화가 연안에서 이루어진 득경활동(得鯨活動) 암각화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

1	대곡리암각화의 木柵과 그물은 沿岸 구조물
2	朝鮮時代 여러 문헌 속에 연안 고래사냥을 묘사하고 그것을 '得鯨'으로 표현.
3	반구대 고래잡이배는 가죽으로 만든 카약과 우미악으로 沿岸 得鯨活動에 사용한 두 가지 배.
4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와 사슴 등 육지동물이 고래와 함께 그려진 것은 沿岸 狩獵活動을 의미.

따라서 우리나라 고래사냥의 원형으로 평가되어온 반구대 대곡리암각화가 大洋捕鯨이 아닌 연안에서 이루어진 沿岸 得鯨活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연안 得鯨活動의 정신적 배경

61) Mark W. Brabyn, Science & Research Series No.29. An Analysis of the New Zealand Whale Stranding Record,
Department of Conservation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1991,

1) 座礁鯨(Cetacean stranding)과 漂着鯨 得鯨 행위와 고래토템 숭배와의 관계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에는 고래뿐만이 아니라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육지동물도 함께 그려져 있다. 이것은 연안에서 이루어진 양면 수렵활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숭배 대상 동물들을 그린 宗教的 배경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

李敏輔(1720~1799)의 [豐墅集]에서 연안 고래잡이에도 전통 고래숭배의 道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62) 원시 사냥 풍속에는 사냥대상을 神으로 숭상하면서 그 神을 사냥하는 양면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이끌고 연안으로 좌초되어 온 좌초경이나 표착경은 외래신 신앙(寄り神 信仰) 대상이 되어 외래고래(寄り鯨) 또는 떠내려 온 고래(流れ鯨)는 漂着神(효차쿠신, The Drifting Ashore God)으로 숭상되었다. 표착신이 당도하면 그것을 得鯨하여 나눠먹은 뒤에 그 좌초되어 온 고래에게 感謝하는 비석을 세웠다. 반구대암각화에 고래들이 그려진 것은 노획물이기 이전에 신으로서 숭상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좌초경은 멀리에서 온 에비수 神이 포구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보시(布施)한 것으로 믿었다.63) 일본에서 좌초경에 대한 외래신 신앙(寄り神信仰)은 三浦半島, 能登半島, 佐渡島 등에 많이 남아 전승되어 왔다. "좌초경이 오면 일곱 마을이 윤기가 난다(座礁鯨の到來は七浦が潤う)"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좌초경 즉 해신이 스스로 와서 여러 마을 사람들의 허기를 구제해 주었다고 여겼다.64)

62) "고래는 바다 깊은 곳을 관장하는 짐승이라(雄長由來管歸墟)." 李敏輔(1720~1799)의 李敏輔(1720~1799)의 [풍서집(豐墅集)] 권3 鯨漂入浦唫記所見(고래가 포구에 떠밀려 와서 본 바를 읊어 기록하다)이라는 詩. "도륙에는 예로부터 법도를 따라야 하건만(斬戮從古擬典刑)".

63) 惠比壽が身を挺して住民に惠みをもたらしてくれたものという理解もされていた.クジラとエビス http://www.catv296.ne.jp/~whale/kujira-ebisu.html

64) 七浦라는 말의 유래는 좌초경이 왔을 때 혜택 받는 어촌 포구의 유래로서 일본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포항 북쪽에도 鯨尾型 암각화로 유명한 七浦里 포구가 있다.

연안 득경활동이라도 고래의 생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해신의 보시(布施)로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래를 숭배했다. 佐渡島처럼 표착되어 온 고래 漂着神은 물고기들을 몰고 오는 漁業神으로서 숭앙된 곳도 있어서[65] 좌초경을 먹으면 풍어가 되지않아 고래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전승이 내려오기도 한다.[66] 미야기현에 케센메마시에 있는 카라쿠와 마을의 미사키 신사(御崎神社)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고래 해신이 풍랑을 맞은 배를 구조해 주어 그때부터 고래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전해져 온다.[67]

2) 고래위패(鯨位牌), 고래족보(鯨鯢過去帳), 고래무덤(鯨塚)과 고래 胎兒가 묻힌 鯨墓 및 고래해신이 배를 구한 傳說

반구대암각화 해석은 전통 동아시아 고래 숭배문화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의 전통 고래신앙(Whale Cults)은 종교적 시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동물토템신앙이 격하된 高麗時代 佛敎 5백년, 朝鮮時代 儒敎 5백년 동안 고래토템을 비롯한 동물숭배 문화는 제거되거나 윤색되었다. 그러나 神道를 중심한 일본에서는 옛 新羅時代에 있었을 고래토템 신앙과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고래의 도움을 받은 배의 전설은 인도신화[68]와 베트남 고래사당에도 전해져 온다. 판 티엣 (Pan Thiet) 시티 반 투이 투 (Van Thuy Tu Temple) 고래사당을 비롯하여 베트남의 50여 고래사당들에서도 본 연구자가 2013년 베트남 현지 탐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나가토시(長門市)의 고간지(向岸寺) 사찰은 고래족보(鯨鯢過去帳)와 고래위패(鯨位牌)가 남아있고 세이게츠안(淸月庵)에는 70여 마리 고래 胎兒가 묻힌 鯨墓가 있다. 이처럼 좌초경이 사냥된 포구에는 고래 해골이나 그 태아를 묻어주는 고래무덤으로서 경묘(鯨墓; 쿠지라 하카)가 있었으며, 고래를 숭상하는 비석인 경비(鯨碑; 쿠지라 이시부미)를 세웠다. 풍어를 기원하는 고래해신의 뼈를 묻은 경총(鯨塚; 쿠지라 츠가)이 있다. 이러한 좌초경을 사냥하고도 숭상한 기념 유적이 일본에는 수백 곳이나 남아 있다.[69]

고래는 외래신인 에비수(惠比壽: えびす) 신의 사절(emissaries) 또는 에비수(惠比壽) 신 자체가 찾아온 것으로 여겼다. 고래신사들은 일본 식민지 때 타이완에서도 세워졌는데 주로 고래해신인 에비수(惠比壽) 신을 모셨다. 타이완의 경우를 볼 때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이 세운 울산 장생포 뒤 언덕에 위치한 神明神社 고래사당은 고래해신인 에비수(惠比壽) 신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歸德 포구는 제주도 영등신이 찾아오는 포구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영등굿의 영등신(靈登神)은 外來神으로 포구에 좌초되어 온 座礁鯨 神이었다.[70] 영등신이 風魚와 豊年을 함께 동반하고 온다고 믿은 것은 일본에서 고래 표착신(漂着神)인 에비수(惠比壽: えびす) 신이 풍어를 수반해 온다고 믿는 것과 그대로 일치한다.[71]

---

65) 座礁鯨에 대한 日本語 위키피디아: 地域によっては漂着神ではなく魚を寄せ大漁をもたらす漁業神として鯨を信仰した. https://ja.wikipedia.org/wiki/%E5%BA%A7%E7%A4%81%E9%AF%A8

66) 座礁鯨を食べると不漁になるという伝承も存在した. http://blog.livedoor.jp/su_mi_jun-book/archives/65599059.html

67) "배 한 척이 폭풍우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대한 두 마리의 흰 고래가 다가왔다. 그 두 마리 고래는 배 양쪽으로 헤엄을 쳐와서는 배를 호위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항구로 이끌어왔다. 그날 이후 카라쿠와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래고기 먹는 풍습을 중지했다." 岩手縣 唐桑町, 唐桑古碑(塚碑)

68) 인도의 홍수신화는 뿔 달린 마츠야(외뿔고래)가 배에 탄 여덟 신선(Saptarishi)을 구하는 스토리다. Matsya (narwal) rescues the Saptarishi and Manufrom the great Deluge.http://powerpointparadise.com/blog/2012/10/manu-the-indian-noah-his-flood-story-agrees-with-other-deluge-accounts/

69) 웹자료: 鯨文化：鯨を弔った鯨墓・鯨塚など http://www.geocities.co.jp/NatureLand-Sky/3011/kujirahaka.html

70) 영등굿의 영등신에게 쌀을 한지에 담아 바다에 던지는 제사인 '지드림' 또는 '지' 제사는 1백년 전 블라디보스톡에 출가물질을 한 제주해녀들이 고래에게 제사한 모습과 일치한다. 김성규, '고래문화 歷史에서 龍王信仰과 고래: 고래상어, 범고래, 귀신고래, 외뿔고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집, 한국고래문화학회, 2015

71) 中山太郎, 『えびす神異考 『日本民俗學. 歷史篇』 , 大岡山書店, (1931). 제주도 영등신과 일본의 에비수 신은 외래신으로서 고래라는

5.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고래와 人間의 交感 암각화들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고래사냥은 座礁鯨을 得鯨하는 암각화다. 그 得鯨의 과정 또한 종교적인 면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함께 그려진 고래와 인간의 교감하는 암각화들에서 파악해 낼 수 있다. 사진 9와 그래픽 3에서 보듯이 반구대암각화에는 사람이 고래상어 등을 탄 기경상천도(騎鯨上天圖)도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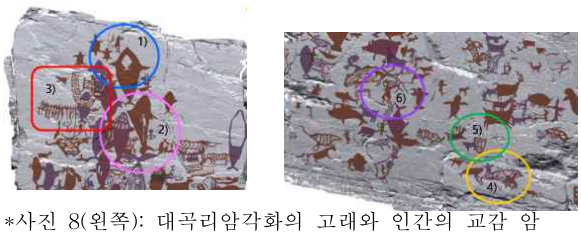


*사진 8(왼쪽): 대곡리암각화의 고래와 인간의 교감 암각화들:
1. 고래를 부르는 돌피리 부는 남자
2. 카약과 우미악 가죽배를 사용한 연안 득경활동.
3. 연안에서 木柵과 그물을 사용하는 수동식 득경활동.
*사진 9(오른쪽): 대곡리암각화의 고래와 인간의 교감 암각화들:
4. 고래상어 등을 타는 騎鯨上天圖
5. 아막낙 탈과 처용탈의 원형인 반구대 고래뼈 탈
6. 바닷말(Bull Kelp) 나팔 Whale C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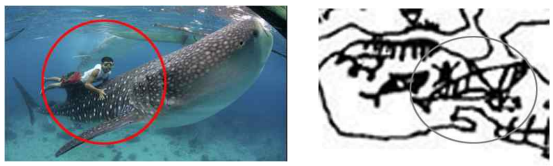


*사진 9(왼쪽): 고래상어 탄 사람, *그래픽 3(오른쪽):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騎鯨上天圖의 사람의 위치. 사진 9의 고래상어를 탄 사람 위치와 같다. 고래상어는 龍王으로 숭배되었다.[72]

고래 등을 타는 騎鯨上天에 관한 기록은 신라 때 연오랑과 세오녀가 고래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三國遺事] 기록에서부터 조선시대에도 "편안히 고래 등 타고 바다를 건너는 듯하고(妥帖鯨背跨海狀)"라는 시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73] 신라시대 사찰인 상주 남장사(南長寺)의 신라시대 벽화에는 고삐를 잡고 고래 등을 타는 기경상천도(騎鯨上天圖) 그림이 두 점 남아 있다. 고삐를 잡고 고래 등을 올라타는 그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흔하게 보인다.

*사진 10(왼쪽): AD. 5세기 로마인들의 고래 고삐 잡은 騎鯨上天圖. *사진 11(오른쪽): 상주 남장사 벽화의 신라시대 고삐 잡은 騎鯨上天圖

대곡리암각화에는 3천년 전의 코리안들이 사용했던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의 코리안 온돌터에서 발굴된 고래뼈 탈[74]과 같은 시기의 1960년대 함경도 서포항 굴포리 패총에서 발굴된 3천년 전의 고래뼈 탈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고래뼈 탈 암각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미 시애틀 인근 마카 인디안들(Maka Indians)의 암각화처럼 고래와 사람의 婚姻巖刻畵(Wedding Rock)도 발견된다. 고래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미역나팔(Bull Kelp Trumpet) 암각화도 있다. 미역은 귀신고래 길과 일치하는 신대륙으로 가는 연안 루트를 가지고 있다.[75] 고래사냥에 그릇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와 사람의 交感 交流史의 시원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결 론

기존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고래사냥 역사 전체를 19세기 식의 大洋 捕鯨으로 인식시켜 왔다.

것에 일치한다. 김성규 위의 논문(2015) 참조. "えびす (蛭子、戎、恵比壽など) は外來の神としての性格を持ち、外洋から訪れる鯨にえびすの神格が重ねられる."

72) 김성규, '고래문화 歷史에서 龍王信仰과 고래: 고래상어, 범고래, 귀신고래, 외뿔고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집, 한국고래문화학회, 2015

73) 정조때 부사직 이헌경(李獻慶)이 부교행(浮橋行)이라는 시. [朝鮮王朝實錄] 정조 13년(1789) 10월5일 기록.

74) 김성규,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2013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발표,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3.

75) 김성규, '1만4천8백년 전 南美 칠레 Monte Verde 미역 化石과 太平洋 고래길에 관한 硏究,' 2016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발표,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6.

그 결과 반구대암각화 해석은 물론 우리나라 고래역사 해석에서 마치 대양에서 고래사냥만을 해온, 그래서 '고래고기 사랑' 민족처럼 호도해온 면이 있다. 그러나 선사시대부터 沿岸으로 좌초되어 온 座礁鯨과 漂着鯨을 得鯨하는 방식의 수동적 고래사냥이었으며 오히려 반구대암각화의 주요 암각화 구성은 고래와 인간의 교감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전통고래문화는 고래토템 숭배와 함께 고래가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 고래와 인간의 상호 교감하는 交流史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세계最古 반구대암각화는 세계인들의 고래사랑의 표상 암각화로 동물과 인간의 相生의 원형이다.

우리나라 전통 고래사냥역사는 적극적으로 고래사냥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은 大洋의 살아있는 고래들은 사냥을 하지도 못했고 시켜도 하지 못했다! 반구대암각화를 그린 선사시대 코리안들은 沿岸에 좌초된 좌초경 또는 표착경 得鯨活動을 했다. 반구대암각화의 근간은 고래사냥보다 오히려 고래사랑 문화를 숭상한 내용임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 반구대암각화의 座礁鯨 得鯨 활동을 필두로 코리안 傳統 고래文化 역사는 고래와 人間의 交流史로서 그리고 고래사랑으로서 解釋될 수 있어야 한다.

REFERENCE

古典 古文獻 金石文 인용

[高麗史] 성종편
[高麗史] 원종편
文武大王 碑文
徐有榘, [林園經濟志].
徐有榘, [林園經濟十六志]
申維翰, [海游錄]
楊士彦, [觀屠鯨]
柳濡, [觀獵鯨]
李宜顯, [陶谷集] 제4권.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鯨鰐辨證說.
李宜顯, [陶谷集] 제4권.
李敏輔, '[豐墅集] '鯨漂入浦唫記所見'
一然, [三國遺事] 赫居世편, 文虎(武)王편.
丁若銓, [玆山魚譜].
趙慶男. 續雜錄. 권4
曺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영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정조실록
[海東雜錄] 3 本朝 魚得江,

BIBLIOGRAPHY

[1] 'The Ancestor Paikea - Ngāi Tahu - Te Ara Encyclopedia of New Zealand,' Teara.govt.nz. Retrieved, 2016.
[2] Brabyn. Mark W., Science & Research Series No.29. An Analysis of the New Zealand Whale Stranding Record, Department of Conservation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1991,
[3] Dikov. Nikolaĭ Nikolaevich, (Trans. Richard L. Bland) Mysteries in the Rocks of Ancient Chukotka (Petroglyphs of Pegtymel).Moscow. Nauka (1971) p.136
[4] Ellis, R. 1994. Monsters of the Sea. Robert Hale Ltd.
[5] Hou. Te Ao, The New World, The Story of Paikea and Ruatapu, No. 40, The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September 1962).
[6] 岩手縣 唐桑町, 唐桑古碑(塚碑)
[7] 中村 羊一郎 , '玄海灘におけるイルカ漁と漁業組織,' 靜岡産業大學國際情報學部研究紀要 7 , 386-341쪽, 2005.
[8] 中山太郎, ゑびす神異考 『日本民俗學. 歷史篇』 , 大岡山書店, (1931).
[9] 井原西鶴, 日本永代藏(Japan's Warehouse of Eternity), 1688.
[10] 天野努의 [図說 安房の歷史], 郷土出版社, 2009.
[11] 김성규, '고래문화 歷史에서 龍王信仰과 고래: 고래상어, 범고래, 귀신고래, 외뿔고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집, 한국고래문화학회, 2015
[12] 김성규,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2013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발표,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3.
[13]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研究
[14] 김성규, '1만 4천 8백년 전 南美 칠레 Monte Verde 미역 化石과 太平洋 고래길에 관한 研究,' 2016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발표,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6.
[15] [沈淸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6]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7] 李敏輔(1720~1799)의 [풍서집(豐墅集)] 권

3 鯨漂入浦唫記所見(고래가 포구에 떠밀려 와서 본 바를 읊어 기록하다)이라는 詩.
[18] 曺蒼錄, 한문학에 나타난 '고래'에 대한 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 동방한문학회 62집 2015년

Supporting Online Material

[1] Bakekujira and Japan's Whale Cults
https://hyakumonogatari.com/2013/05/10/bakekujira-and-japans-whale-cults/
[2] 鯨文化：鯨を弔った鯨墓・鯨塚など
http://www.geocities.co.jp/NatureLand-Sky/3011/kujirahaka.html
[3] クジラとエビス
http://www.catv296.ne.jp/~whale/kujira-ebisu.html
[4] 日本語 ウィキペディア 座礁鯨
https://ja.wikipedia.org/wiki/%E5%BA%A7%E7%A4%81%E9%AF%A8
[5] 佐渡島 やまはかすみの まゆひきて
座礁鯨を食べると不漁になるという伝承
http://blog.livedoor.jp/su_mi_jun-book/archives/65599059.html
[6] Matsya (narwal) rescues the Saptarishi and Manufrom the great Deluge.
http://powerpointparadise.com/blog/2012/10/manu-the-indian-noah-his-flood-story-agrees-with-other-deluge-accounts/

Main Fields of Interest

Ancient worship for maritime animals, Traditional Whale Culture, Sea Otter, Seaweed, Kelp Forest, Skin boats such as Kayak, Karak(駕洛) and Umiak, Exploration of the whale shrines and relics in the Pacific Rim, Whale worship culture in Korean history, American Indian culture, Whale protection movement. and Shamanism, myths, legends related to the maritime animals and plants.